

리마 에어쇼를 다녀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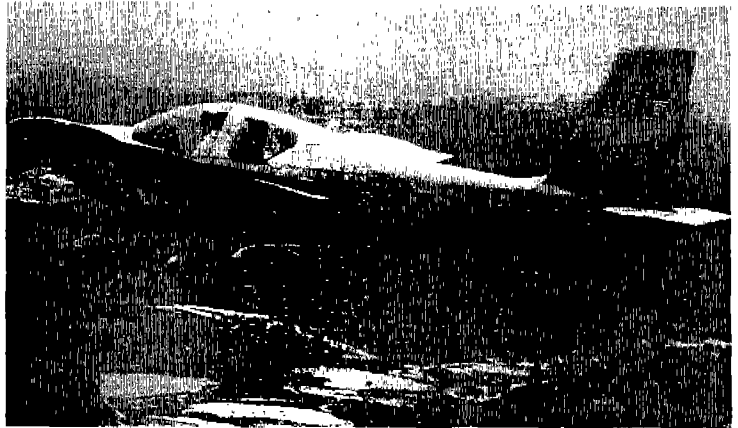
강 광 구

제3차 LIMA'95(Langkawi International Maritime & Aerospace) 항공우주 및 선박 전시회가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6일간 말레이시아 Langkawi국제공항에서 개최되었다.

12월 8일 아침에 김포공항을 출발한 우리일행은 싱가포르에서 한번 기착하고 말레이시아의 조그만 도시인 페낭에서 다시 한번 기착을 하는 과정을 거쳐 저녁 해질무렵에 목적지인 랑카위 국제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렇게 교통이 불편한 곳에서 굳이 전시회를 개최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곳 전시회가 열리는 곳은 우리나라 제주도의 반 정도 크기로 현 말레이시아 수상이 태어난 곳이며 이번 전시회 주관사 사장의 고향이기도 하다. 공항에 도착하니 지은지 얼마되지 않아 시멘트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깨끗한 공항 시설을 보면서 이번 전시회를 준비하기 위해 정부 당국 및 주관사가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짐작이 갔다. 적도부근 이라 후덥지근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저녁무렵에는 선선하였다.

다음날 아침 일찍 전시장으로 향하였다. 오전에는 말레이시아 수상이 전시장을 돌리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다. 일반관람객들의 관람허용 첫날이어서 그런지 우리가 전시장에 도착하기 전부터 부근 주차장은 이들의 주요 교통수단인 오토바이와 자동차들로 만원을 이루고 있었다. 전시장은 약 18,000평방미터 규모의 메인홀과 텐트로 만들어진 홀의 실내전시장과 야외 전시장으로 이루어졌다. 주최측 설명으로는 35개국 587개 업체가 참가하였다고 하며, 야외 전시장에는 적어도 84대의 각종 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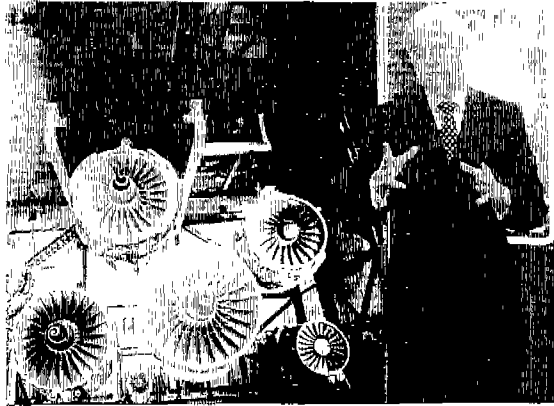
말레이시아가 자체기술로 제작한 2인승 경비행기

공기가 전시되어 있었고 일반인들이 가장많은 관심을 끌었던 비행곡예팀으로는 영국 호크기 10대로 구성된 비행곡예팀인 레드 애로우 팀, 러시아 수호이기 및 미그기로 구성된 나이트 팀, 말레이시아의 경비행기로 이루어진 골든 드림팀등이 참가하였다.

홀은 총 9개로 40여개의 살레가 들어서 있었다. 전시 후반이라 이미 다수의 업체들이 빠져 나갔는지 군데군데 빈 부스들이 보였다. 특징적인 것은 우리나라처럼 나레이터 요원들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 대신 크고 작은 영상매체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먼저 미국관을 둘러 보았다. 우선 맥도널 더글라스사의 비행시뮬레이터 장치가 시야에 들어왔다. 일반 관람객들도 탑승기회를 주었는데 관심들이 대단한 것 같았다. 낮익은 벨보잉사의 V-22 OSPREY기도 사진으로 전시되어 있었다. 걸프스트림사는 약 2달전에 첫 출시된 G-V를 대상으로 수주 활동을 벌이고 있었는데 대당 가격은 약 3천~3천5백만 달러 정도라고 하였다. 보잉사는 B-777기종을 선보였는데 싱가포르 항공사와 약 한달전에 34대의 확

정 구매 계약을 맺었다고 한다.

영국관에서는 레드 애로우팀의 구성 기종인 호크 100의 전면 부위가 벽면을 뚫고 나오는 형상으로 전시되어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 옆에는 톨스로이스사의 각종 항공기 엔진들이 축소돼 전시되어 있었다. 전시관 바로 입구에는 유러콥터사에서 에퀴레이, 도핀, BK-117 등을 전시해 놓고 있었다. 말레이시아관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최초로 제작한 2인승 훈련기의 제작 과정이 담긴 화보와 함께 동체 일부를 전시하고 있었는데 조만간 말레이시아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하였다. 이밖에도 러시아관에



톨스로이스사의 홍보관

서는 MI-26과 MI-17헬기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관에는 이상한 모양의 무인기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잠시후 비행기 엔진소리와 함께 머리위를 지나는 굉음에 이끌려 야외 전시장으로 발길을 옮겼다.

적도 지방 오후 따가운 태양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의 관중들은 대형 수송기 날개 밑에서 뻥뻥히 모여 앉아 관람하고 있었는데 약 5~6만명정도는 족히 되어 보였다. 항공전시회에서 일반인들에게는 아직까지는 공중 곡예비행이 단연 인기인 것 같았다.

야외전시장에는 세계 각국에서 날아온 군수와 민수분야의 크고 작은 비행기 약 84여대가 열을 맞추어 전시되어 있었다. 민수 분야에는 BOMBARDIER사에서 REGIONAL JET, DASH8-200, CL-415와 FOKKER사의 FOKKER100, BELL사의 BELL412EP, BELL230, BELL206L-4등이 선을 보였다. 군수 분야에서는 러시아의 MIG-29, SU-27등의 전투기들과 미국의 F-15, F-18, F-16, AH-60 등 과거 냉전시대 동서 양진영의 주력 항공기이었던 기종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능을 과시하려는

듯 자태를 뽐내는 모습이 보기좋았다. 하늘에서는 이미 곡예비행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러시아의 MI-29, SU-27의 편대비행, 배면비행, 교차비행 시범에 이어 이번에는 미국의 F-16, F-18기종이 연이어 날아 올랐고, 그뒤로는

일본의 BK-117 헬기, MD사의 MD900 헬기,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소형헬기등의 시범비행이 이어진후 세계 최대 헬기인 러시아의 MI-26헬기가 위용을 떨쳤다. 마지막으로 영국 레드 애로우 팀의 곡예 비행이 있었는데 비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보기에조차 금전의 곡예비행들 보다는 한차원 높은 것 같았다.

이번 전시회는 3번째 치루는 전시회로서, 전반적으로 무난히 치루어 졌으나 아직 미숙한 점도 다소 보였다. 운영상으로는 행사인인 듯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음료수 등을 팔게 하는 모습이라든지, 말레이시아 관에서는 일반 약세서리, 빵 및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모습들이 눈에 거슬렸고 시설면에 있어서는 바닥의 전선처리, 뜯어진 천막등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 특히 화장실 및 식당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그 넓은 전시장에 화장실과 식당이 단 하나 뿐이었던 관계로 화장실 및 식당에는 불일을 보려는 사람들로 만원을 이루었고 전시 참가업체 운영자들은 점심을 해결할 곳이 마땅치 않아 끼니를 거르기가 일수였다.

내년에 개최되는 서울 에어쇼 '96은 분명히 이번 말레이시아 에어쇼보다는 확실히 나올 것이다. 하지만 타산지석(他山之石)이란 말이 있듯이 이번 에어쇼 참관 경험을 살려 보기에 좋지 않았던 점들은 보다 낮게 하려는 노력이 따라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될때 서울 에어쇼는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국제 에어쇼로 발돋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